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로 환동해권 산업 원자재 공급기반 확충

- 10만 DWT급 석탄부두 1선석 조성 착공, 2031년 준공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동해권 시멘트 제조업과 발전산업에 필요한 석탄 등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공사를 착공했다고 29일(금) 밝혔다.

현재 동해항은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처리하고 있으나, 기존 운영 중인 석탄 부두의 연간 하역능력은 400만 톤 수준으로 향후 물동량 수요(2030년, 약 951만 톤)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석탄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선박 대기시간 증가와 화물 적체 등 항만 운영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총사업비 1,386억 원을 투입하여 2031년까지 동해신항에 10만 DWT급 석탄부두 1선석(330m)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롭게 석탄부두가 조성되면 항만 하역능력이 확충되어 선박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항만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동해신항 석탄부두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원자재 공급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라며, “동해신항의 항만 경쟁력을 키워 환동해권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51-773-5930)
	항만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위 (051-773-5935)

참고

동해신항 석탄부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멘트 제조 및 발전용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항만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석탄 부두(10만 DWT급) 조성 추진
- (사업기간/총사업비) '23~31년(공사기간 60개월) / 1,386억원
- (사업내용) 10만DWT×1선석(330m)

□ 추진경위

- '11. 7 : 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 '12. 3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B/C 0.94, AHP 0.578)
- '16. 9. :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9. 8. :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고시
- '23. 9. ~ '24.12. : 실시설계 시행

□ 조감도 및 계획평면도

